

제시문들은 개인과 사회의 관계에 대해 다룬다. 가는 사회 속에서의 공평한 관망자의 역할을, 나는 사회의 배경성을, 다는 개인과 집단 속 개인의 차이를, 라는 우의를 각각 주제로 한다. 이들 제시문 중 개인이 사회에 끼치는 영향이 높은 순서는 가,라,다,나이다.

제시문 가는 개인이 사회에 전적으로 영향을 끼친다. 가는 공평한 관망자를 개인으로 본다. 공평한 관망자는 완벽하게 합리적인 존재로서, 무한한 상상력을 가진 존재이다. 공평한 관망자는 그 능력을 기반으로 최대 효율이 실행되는 사회를 만든다. 즉 공평한 관망자라는 개인의 결정이 사회를 이끌 수 있다는 것이다.

제시문 라는 개인이 사회에 상당한 영향을 끼친다. 하지만 라는 개인의 집단성 측면에서 가는 공평한 관망자보다 사회에 끼치는 영향이 떨어진다. 우선, 라는 개인들은 집단적 속성을 가져야만이 사회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정치를 하기 위해서는 같은 선한 생각을 가진 공동체의 결성이 필요하며, 정치 또한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로 정의하기 때문이다.

제시문 다는 개인이 사회에 미미한 영향을 끼친다. 다에서 개인은 선한 존재로 본다. 개인이 타인을 손익의 관점으로만 보는 것이 아닌, 동정과 배려의 관점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개인들이 모여 만든 사회는 보다 이기적인 속성을 가진다. 사회에선 개인의 충동들이 억제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즉, 개인의 이타적 속성은 사회에 영향을 거의 미치지 않는 것이다. 물론, 사회의 이기적 속성이 개인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주장할 수도 있다. 하지만 개인의 이기적 속성은 사회 내의 구성원일때만 발휘되는 것으로, 개인 자체로 존재할 때의 속성이라 보기 힘들다. 한 개체로서의 개인의 속성은 사회에 별다른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것이다. 따라서 개인이 사회에 영향을 많이 미친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제시문 나는 개인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이 거의 없다. 나는 개인의 속성을 사회가 형성한다고 본다. 개인의 사회,경제적 위치 또는 사회적 관계 등은 모두 태어날때부터 있었던 사회가 부여한다는 것이다. 이 경우 개인은 오히려 사회의 영향을 받는다고 볼수있다.